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과장 대신 ‘님’... 직급 사라지는 기업들

능력·성과 중심 조직문화 혁신 vs 승진·연봉인상 기회 줄어

회사에서 ‘부장님’이 사라진다. 대기업들이 ‘소통’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해 조직 개편에 고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직급을 간소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젊은 연차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성과위주로 조직을 경영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도드라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직급 체계가 단순해지면 ‘사기 저하’와 ‘연봉 인상 불리해 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편집자주

◆ “호칭 바뀌니 진짜 바뀐다”...능력 중시, 빨라진 직원 의견 수렴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두산그룹은 임원을 제외한 기존 5개 직급을 2개 직급으로 단순화하는 개편을 진행한다. 사무직부터 기존에 사원·대리는 ‘선임’으로, 과장·차장·부장은 ‘수석’으로 불리게 된다. 이후에는 생산직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두산그룹 내에서도 임직원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가 시행됐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의 강점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열린 소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호칭 통일은 CJ그룹이 가장 먼저 2000년에 ‘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목을 끌었고, 지금은 ‘트렌드’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CJ는 부장, 과장, 대리 등의 직급 호칭을 대신 이름에 ‘님’자를 붙여 쓰고, 공식석상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이재현 님’으로 부른다. 지난해에는 ‘님’을 넘어 사장, 총괄 부사장, 부사장, 부사장대우, 상무, 상무대우로 나뉘었던 6개 임원 직급도 ‘경영리더’라는 하나의 직급으로 통합했다.

CJ는 수직적인 조직 구조에서 탈피해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HD현대 인스타그램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공서열’보다 ‘성과·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CJ 관계자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임원들 사이에서도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며, 해당 호칭 변경의 목적 자체는 ‘능력’이 있으면 더 빠르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조직장이나 실장 등의 ‘보직’을 의미하는 말이지 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다.

국내 주요기업 직급 개편 증가 수평적 체계로 의사소통 강화 두산, 임원 제외 2개 직급 단순화

가령 과거에는 과장을 맡고 있던 A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바로 부사장 급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직급이 간소화돼 임원 승진이 성과 위주로 더욱 빠르게 단행된다

는 특징이 있다. CJ가 불씨를 당겼다면, 연공서열 파괴로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전자와 SK그룹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수평 호칭 제도를 시행하며 직함 대신 ‘님’, ‘프로’ 또는 영어 이름을 자율적으로 사용해왔다. 올해들어서는 경영진, 임원으로 ‘수평 호칭’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재용 님’, 영문 이름 ‘Jay’, 이니셜 ‘JY’으로 불려야 한다.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됐는지 묻는 말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실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끼리 직급을 아니 ‘부장님’, ‘선배’ 등의 호칭이 나오기도 한다”면서도 “타부서와 소통할 때는 ‘프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할 때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승진 시에도 승진 대상 당사자와 인사팀만 승진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난 경

우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구성원 간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도록 더욱 힘써 도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CEO에게 질문과 건의를 할 수 있는 ‘엔톡(EnTalk)’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공장’은 엔톡 건의를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새 명칭 ‘오창 에너지플랜트’로 변경됐다.

직급에 따른 업무과약 어려워져 장기근속자 동기부여 약화 우려 “페이밴드 근거·결과 제공해야”

이처럼 대부분의 그룹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 확산과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호칭 간소화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HD현대그룹, 한화그룹, HMM,

효성그룹 등이 기존의 연공서열 직급 체계 대신 수평 호칭 제도를 채택했다.

◆ “보여주기”...업무 동기 부여 약해지고 연봉 인상 하락 ‘꿈수’

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직급 간소화의 장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삼성 계열사를 다니는 A씨는 “대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장점이지만 직급을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몇 사람을 거쳐서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 불편할 때가 있다”고 말했고, B씨는 “20년을 일해도 호칭 변경이 없어 승진 동기 부여가 약해진 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자업계 C씨는 “회사가 지남달 호칭을 폐지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결국 올해는 일부 조직에서 파일럿 형태로 운영해 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걱정을 표한 이유는 ‘연봉인상’ 기회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측면 때문이다. 기업이 ‘고과별 연봉인상 차등을 두면 된다’, ‘동기부여는 성과로 이뤄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호칭 폐지와 더불어 직급 통폐합에 반대하는 직원들은 “고과대로 준다는 말을 어떻게 끝이끝대로 믿겠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견에 재계 관계자는 “회사도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페이밴드(보수단계) 근거와 결과를 제공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은 어떤 기업도 이 제도가 온전히 의도대로 안착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추경호 “미래車 지원 강화... 무역금융 364.5兆”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출투자책임관 회의 개최 “현장 중심 애로해소 방안 마련”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2조원 더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에 정부가 추가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선업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도 늘리고,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한도는 기존 70~85%에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자 정부는 수출 주력 업종별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업종별 여건을 개선, 기업 어려움을 해소해 수출에 드라이트를 줄겠다는 취지다.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공급을 2조원 추가, 올해 총 364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점검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이달 중 최대 0.6%포인트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선박 가격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의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 약 936억원을 활용해 보증비율을 현재 70~85%에서 더 올린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쇼어링) 후 미래차 등의 수출용 운반선 부족 문제도 선적을 지원해 해소하기로 했다.

수주전략산업인 원전과 해외건설 등은 원활한 수주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이행성 보증서 발급을 위해 특별지원 한도를 1.5배 늘려 제공한다.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무보율 적용 등 수출보증보험 조건도 우대한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수출 실적 6837억 달러를 상회하는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모든 부처가 수출 지원 부처라는 생각으로 수출 산업 현장의 추가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단기 변동성 확대 전망... 시장 영향 제한적

▶▶ 1면 ‘SVB 파산 충격...’서 계속

국내 전문가들은 SVB 파산이 단기 변동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 시스템 리스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양명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SVB에 자금을 예치한 사람들이 자신의 예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SVB 사태의 확산 우려는 결국 예금인출이 중단될 경우 기업들이 재무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려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VB 파산은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회피가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SVB 파산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가 조정 시 매수 대응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미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경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연준이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의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기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결정할 확률이 94.5%, 금리 동결 확률은 5.5%로 각각 나타났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시점부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 나갈수록 경제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SVB 사태가 보여줬다”며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여지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은 순식간에 그들의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왔다. 이미 채권시장은 연준의 태도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